광주시, 세수 감소 현실화…하반기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2차 재정전략회의…국세·지방세 동반감소 재정여건 악화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 등 선제적 대응키로

세수 감소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광주시의 하반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감소하면서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각종 경상경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광주시의 현재 재정상황 분석과 세입 전망·재정 수요 파악,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 방향,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등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불황으로 대외 무역이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춰 1.4~1.6%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한,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동기(1분기 누계 기준)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000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재검토와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성장을 위한 미래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가기로 했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도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공지능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민 불안한데 전남도 '수산관측 전망대회' 잠정 연기

어업환경변화·수급 동향 등 어민들에 신속 제공해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3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현장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상당한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산과학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급동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운 점 등을 토로하는 해양수산개발원측 입장과 지역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전망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게 전남도 수산과학원측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수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 취지를 고려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빚어질 수 있는 어업 환경 변화, 수급 동향 등을 신속하게 지역 어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행사 일정을 늦출 게 아니라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게 산업 전망을 제시해 어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는 전국 최대인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개최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회째로, 전남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유통부분을 관측·분석하는 한편, 전남지역 주요 양식품목인 김·미역 등 해조류, 전복 등 패류, 광어·뱀장어 등 어류 산업의 최근 현황과 수급 동향, 양식 전망 등을 제시해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방류로 인한 어업 환경 변화 등을 담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준비했지만 충분한 산업 전망 등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다회용컵 사용하세요" 15일 오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원들이 청사 광장에서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청사 내 1회용품 제한 캠페인을 펼치며 직원들에게 텀블러 등의 다회용컵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좌석에 고향사랑 기부자 새긴다

16일 재개관 기념행사 '네이밍 도네이션' 명판 부착식

광주를 선택한 고향 사랑 기부자들의 이름이 광주 예술의전당 좌석에 새겨진다.

광주시는 "16일 광주 예술의전당 재개관 기념행사에서 고향 사랑 기부 '네이밍 도네이션' 명판 부착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박승희·문검지 부부가 각각 신청한 '상임지휘자 박승희', '오케스트라 아리랑 문검지'라는 문구를 담은 명판을 부착하는 모습이 시연된다.

네이밍 도네이션은 광주시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본인 또는 가족, 연인, 친구 등의 이름과 희망하는 문구를 10자 이내로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좌석에 새기는 것이다.

'광주시장 강기정 외 가족',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 외 가족', '광주시의원 강수훈',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등 답례품으로 네이밍 도네이션을 선택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부착된다.

문화예술 소모임 ARTYGEN, 팬들이 신청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배두훈·강형호·조민규·고우림, 가수 김다현, 전남대 미리내 4기, 출산 예정인 태명과 가족 이름 '동수 나희 서은 또봉' 등 명판도 생긴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기부가 이어지고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답례품과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해남군 선정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25억 투입…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

15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들어서는 수산양식 클러스터가 어촌 활력 증진과 스마트어업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과 양식업의 기계화·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425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3만3058㎡ 부지에 연면적 1만1200㎡ 규모로 조성된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될 해남은 도내 수산양식 기자재 업체가 집중된 목포, 영암, 완도 등 서남권 중심부에 위치해 기존 관련기업과 연계가 용이하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다양한 기반 시설 구축이 예정돼 있어 개발기간이 짧고 입주기업의 투자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엔 수산양식 연구지원센터와 기자재 생산단지,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물류유통 홍보센터 등이 집적화 된다.

'수산양식 기자재 연구센터'는 기자재 제조기업의 시험 및 R&D를 지원하고, '기자재 생산단지'에선 입주기업의 생산기술과 생산활동을 돕게된다. '물류 및 홍보센터'는 입주기업 생산기자재 유통과 AS센터, 우수제품 홍보관 등을 운영하게 되며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베드'는 연구센터와 연계해 실증한 제품의 고장 원인분석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연구개발(R&D) 기능이 집적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산양식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전남을 국내 최대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조직변경공고

당 회사는 2023년06월14일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보은이엔씨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 회사에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유한회사 보은이엔씨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20-3 (우산동)
대표이사 양광균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6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2,000,000,000원 중 금1,9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금1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총수 200,000주 중 190,000주를 주주들로부터 1주당 금 10,000원에 유상 매수하여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를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주식회사 마레키아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142
대표이사 노한석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6월 9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주식회사 페릿손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49, 105호(신용동)
청산인 진경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6월20일~21일(화~수)

▲광주호산회 6월 20일~21일(화~수)〈서해 최북단 백령도〉오전 02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롯데백화점 03시 10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